

공목적어의 해석 조건 : 중심화이론적 접근

대덕대학 교양과
김 미 경

A Condition on the Interpretation of Zero Objects in Korean Discourse : a Centering Analysis

Mi-Kyung Kim
Daeduk College, Daejeon, Korea

요 약

본 논문은 Grosz et al(1995)의 중심화이론(centering theory)을 바탕으로 목적어의 생략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한국의 민담에 나타난 431개의 절과 신문사설 249개의 절을 분석한 결과 공목적어(zero object)의 17%만이 중심유지변이(continue transition)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중심화이론의 기존의 세 가지 제약만으로는 공목적어의 분포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화이론 내에서 공목적어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하여 Kameyama(1998)의 평행선호조건(Parallelism Preference Condition)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행선호조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지된다. 첫째, 중심변이 개념만으로 설명이 불충분한 공목적어의 분포를 중심화이론 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순조로운 중심이동변이(smooth-shift transition)에 나타나는 공주어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평행선호조건은 공대명사의 해석뿐만 아니라 시제의 생략이나 동사의 생략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조건이다.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문장의 표면에서 자주 일어나는 필수논항의 생략의 동기를 Grosz et al(1995)의 중심화이론(centering theory)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민담자료와 신문사설에 나타난 공대명사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검증해보는 것이다.

Di Eugenio(1998)는 이탈리아어에서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공대명사의 기능을 중심화이론의 관점에서 관찰한 바 있으며, Turan(1996)과 Iida(1998)도 각각 터키어와 일본어에서의 공주어의 분포가 중심화이론의 중심유지변이(continue transition)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공주어의 분포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목적어(zero object)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중심유

지변이는 공주어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공목적어의 분포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며, 공목적어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약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심유지변이가 공주어 및 공목적어의 분포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한 후, 공목적어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하여 평행선호(Parallelism Preference) 조건이 추가되어야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 료

본 연구에서는 9개의 민담에 포함된 431개의 절과 9개의 신문사설에 포함된 249개의 절을 분석하였다. 논항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중심변이의 분석을 위한 기본 단위는 시제절이었다. 관계절과 명사절(주어절과 목적어절)은 명사구의 일부로 처리하여, 두 종류의 절 내에 나타난 논항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명사구중에서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필수논항만

Table 1. 논항의 분포(민담)

	공대명사	어휘명사구	합 계
주 어	229(53.1%)	202(46.9%)	431
목적어	36(13.6%)	228(86.4%)	264
합 계	265	430	695

Table 2. 논항의 분포(사설)

	공대명사	어휘명사구	합 계
주 어	100(40.2%)	149(59.8%)	249
목적어	11(8.1%)	125(91.9%)	136
합 계	111	274	385

을 분석하였으며, 부사구에 포함된 명사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명사구의 형태는 공대명사와 어휘명사구로 이분하였다. 대명사는 따로 분리하지 않고, 어휘명사구로 분류하였다.¹

다음의 Table 1, 2는 각각의 자료에 나타난 필수논항의 분포를 보여준다.

공대명사의 분포와 중심유지변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1)의 가설을 중심으로 공대명사의 분포를 테스트해보았다.

1) 공대명사는 중심유지변이(continue transition)를 나타내며, 어휘명사구는 중심유보변이(retain transition)나 중심 이동변이(shift transition)를 나타낸다.

Table 3, 4는 중심유지변이와 관련하여, 공대명사와 어휘명사구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 4는 중심유지변이(continue transition)에서 공대명사가 사용되는 비율이 민담과 사설에서 각각 90.5%와 94.6%이고, 중심유보변이(retain transition)와 거친중심 이동변이(rough-shift transition)에서는 어휘명사구가 사용되는 비율이 90~95.2%와 96.2~85.8%로 1)의 가설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데이터의 분석 결과 가설 1)에는 두 가지 한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순조로운 중심이동변이(smooth-shift transition)의 경우로, 민담과 사설에서 공대명사의 사용 비율이 각각 33.9%와 59.4%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설 1)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

Table 3. 중심변이에 따른 공대명사의 분포(민담)

	중심유지변이	중심유보변이	순조로운 중심이동변이	거친 중심 이동변이
공 대 명 사	182(90.5%)	1(10.0%)	39(33.9%)	4(3.8%)
어휘명사구	19(9.5%)	9(90.0%)	76(66.1%)	101(96.2%)
합 계	201	10	115	105

Table 4. 중심변이에 따른 공대명사의 분포(사설)

	중심유지변이	중심유보변이	순조로운 중심이동변이	거친 중심 이동변이
공 대 명 사	53(94.6%)	1(4.8%)	31(59.4%)	17(14.2%)
어휘명사구	3(5.4%)	20(95.2%)	21(40.4%)	103(85.8%)
합 계	56	21	52	120

결하기 위하여, Walker et al(1994 ; 213)에서는 $C_b(U_i) = C_b(U_i - 1)$, $C_b(U_i) = C_p(U_i)$ 인 경우와 함께 $C_b(U_i) = ?$, $C_b(U_i) = C_p(U_i)$ 인 경우도 중심유지변이(continue transition)로 해석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민담의 경우 39개의 순조로운 중심이동변이 중 34개가 중심유지변이로 해석되고, 사설의 경우 31개의 순조로운 중심이동변이 중 20개가 중심유지변이로 해석되어, 민담과 사설에서 공대명사가 순조로운 중심이동변이에 나타나는 경우는 각각 6.2%와 35.5%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Kameyama(1998 ; 9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지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

둘째, 공목적어의 분포와 관련하여, 중심유지변이의 개념은 공목적어의 분포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설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민담의 경우 중심유지변이에 나타난 182개의 공대명사 중에서 공목적어가 중심유지변이에 이용된 경우는 단지 5개였으며, 그 예문들이 다음에 있다.

- 2) a. 그런데 그 사위는, 글방선생의, 아들이 아니었다.
[Cb : 사위 Cp : 사위]
- b. \emptyset 조실부모를 해서[Cb : 사위 Cp : 사위]
- c. \emptyset \emptyset 말아 기르는데[Cb : 사위 Cp : 사위]
- d. \emptyset 지지리도 못한 애라[Cb : 사위 Cp : 사위]
- e. \emptyset \emptyset 나무꾼 노릇을 시켰는데[Cb : 사위 Cp : 사위]
- f. \emptyset 장가도 못 들고 해서[Cb : 사위 Cp : 사위]
- g. \emptyset \emptyset 아들 대신 보냈던 것이다.
[Cb : 사위 Cp : 사위]
- 3) a. 그래도 \emptyset 딸자식이라[Cb : 딸 Cp : 딸]
- b. 5년쯤 후 아버지가 \emptyset 찾아가 보니[Cb : 딸 Cp : 딸]
- 4) a. 형은 자기가 먹은 밥이 후회스러웠다.
[Cb : 형 Cp : 형]

1 그 이유는 분석된 절에 나타난 총 1080개의 논항 중에서 단지 28개의 명사구만이 대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2.6%의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맥에서 대부분의 대명사는 어휘명사구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생략명사구로는 대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b. \emptyset 일른 다른 집으로 가보았지만[Cb : 형 Cp : 형]
- c. 아무도 \emptyset 밥을 주지 않았다. [Cb : 형 Cp : 형]

위의 예문들 중에서 2c), 2e), 2g), 3b)와 4c)에 나타난 공목적어는 후향적 중심(backward looking center)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심유지변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생략구의 형태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율은 민담자료에 나타난 전체 공목적어(36개)의 13.9%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중심변이를 바탕으로는 영목적어의 동기 중 나머지 86.1%의 영목적어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사실의 경우도 매우 비슷해서, 중심유지변이에 나타난 53개의 공대명사 중 2개만이 공목적어였으며, 이는 사실 전체에 나타난 11개의 공목적어 중 18.2%만이 중심유지변이에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설 1)은 데이터에 나타난 공목적어의 85%정도의 분포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의식의 중심 밖에 놓여있기 때문에 공주어와는 달리 공목적어의 분포는 중심변이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²

평행선호(Parallelism Preference) 조건

본 연구에서는 중심변이 개념에 의존하는 가설 1)만으로 한국어에서의 공대명사의 분포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위의 자료를 근거로, 가설 1)과 함께 Kameyama (1998)가 제안한 바 있는 평행선호조건(Parallelism Preference)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평행선호조건은 다음과 같다.

1. Parallelism preference

Two adjacent utterance in discourse seek maximal parallelism.

평행선호조건은 근접한 두 발화는 문법적으로 평행하려는 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연속된 두 발화의 주어는 동지시물이어야 하며, 타동사구문이 연속될 경우는 전후의 두 목적어가 동지시물이어야 한다고 제약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민담과 사실에 나타난 공대명사의 해석을 위해 중심유지변이와 평행선호조건에 의존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위의 Table 5, 6은 공목적어의 경우는 평행선호조건으로 그 선행사를 찾는 비율이 중심유지변이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서, 공목적어의 58.3%~72.7%가 평행선호조건

2 본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민담의 경우 주어가 후향적 중심인 경우가 312회인 것에 반하여, 목적어가 후향적 중심인 경우는 23회였으며, 사실에서는 각각 경우가 80회와 3회였다.

Table 5. 공대명사의 해석 비율(민담)

	중심유지변이	평행선호조건	기 타	계
공 주 어	177(77.3%)	34(14.8%)	18(7.9%)	229
공목적어	5(13.9%)	21(58.3%)	10(27.8%)	36

Table 6. 공대명사의 해석 비율(사실)

	중심유지변이	평행선호조건	기 타	계
공 주 어	51(51.0%)	29(29.0%)	20(20.0%)	100
공목적어	2(18.2%)	8(72.7%)	1(9.1%)	11

에 의해 해석되고 있으며, 공주어 해석의 경우도 14.8%~29.0%를 설명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행선호조건은 생략된 시제나 동사구 등의 해석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규칙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문법 내에 도입하는 것이 공주어의 분포만을 설명하기 위하여 Walker et al(1994)가 도입했던 예외적인 조건을 두는 것보다 문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이 지지될 수 있다.

결 언

본 논문에서는 Grosz et al(1995)의 중심화이론 내에서 한국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공주어와 공목적어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민담과 사실 자료들 바탕으로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중심유지변이 개념에 의존하여 공대명사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민담과 사실에서 공주어의 경우 각각 77.3%와 51%였으며, 공목적어의 경우 그보다 훨씬 낮은 13.9%와 18.2%였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심화이론 내에 평행선호조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REFERENCES

Di Eugenio, Barbara (1998) : *Centering in Italian*. in Walker, Marilyn A, Joshi, Aravind K, Ellen F, Prince ed.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115-37. Oxford : Clarendon Press

Grosz, Barbara, Aravind K, Joshi and Scott Weinstein (1995) : *Centering :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21 (2) : 203-225

Iida, Masayo (1998) : *Discourse coherence and shifting centers in Japanese texts*. in Walker, Marilyn A, Joshi, Aravind K, Ellen F, Prince ed.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161-180. Oxford : Clarendon Press

Kameyama, Megumi (1998) : *Intrasentential centering : a case study*. in Walker, Marilyn A, Joshi, Aravind K, Ellen F, Prince ed.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89-109. Oxford : Clarendon Press

Turan, Umit Deniz (1996) : *Null Vs. Overt Subjects in Turkish Discourse : A Centering Analysi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Walker, Marilyn, Masayo Iida, Sharon Cote (1994) : *Japanese discourse and the process of center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20 (2) : 193-232